



핑크 티셔츠  
우영미(WooYoungMi),  
페이디드 데님 팬츠  
디스이즈네버댓(thisisneverthat),  
체커보드 슬립온 반스(Vans), 블랙  
베이스볼 캡은 아티스트 소장품.

# NEW HEADLINER

4인의 젊은 작가는 오늘도 자청해서 케직을 남긴다.  
키아프 서울 & 플러스에 등장하는 작가들과의 어떤 대화.  
contributing editor KEEM JI YOUNG

## 노상호

NOH SANG HO

노상호는 스스로 설정한 루틴 속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림을 그린다. 정해진 분량의 그림을 꼬박꼬박 그리는 와중에 에어브러시 작업도 시작했고, 3D 프린터로 만드는 오브제나 애니메이션 작업도 넘치지 생각해본다. 더 빨리, 보다 많이 그리고 싶다는 목적에 맞닿은 꾸준함은 조만간 그를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도록 해줄 것 같다.

**작업실 안에 작업실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작업실을 쓰지 한 10개월 되어가요. 기존에 하던 작업은 집에서 할 수 있어서 한동안 작업실을 안 썼는데 새로 에어브러시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에어브러시가 새로운 환경을 만든 셈이네요.**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각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고, 그 부분을 은유할 만한 재료를 찾고 있던 것 같아요. 에어브러시는 분사를 하지만 캔버스에 밀착되지 않죠. 간접적인 툴이라는 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맥락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 새롭게 에어브러시를 선택하게 됐어요.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그림에서 일률적인 퀄리티가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퀄리티를 체크하지 않는 편이에요. 정해진 루틴에서 매일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좋지 않은 그걸 판단하지 않고 계속 완성하는 거죠. 이미지를 찾거나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요.

**매일 스스로를 꾸준히 단련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회화 이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을 가르칠 때 퀄리티를 체크하는 대신 양을 늘리면 더 빨리 성장한다. 저도 가끔 3~4년에 한 번씩 제 그림 실력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예로 들면서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아주 가끔 하고 있죠.

**이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요즘의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근 1년간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는 외부의 평가가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졌어요. 이 점이아말로 좋은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누군가 제 그림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가 신경 쓰거나 체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근래의 루틴 안에는 어떤 형태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나요?** 예전에는 수채화를 많이 썼는데 좀 더 단단한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엔 유화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에어브러시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3D 작업도 시작했죠. 유화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처럼 3D 작업을 위해 3D 모델링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 모델링을 3D 세계에서 배치하고 촬영하면서 일종의 미술을 만들어보는 중이에요.

**3D 작업을 하면서 수집한 이미지로 또 다른 세계를 확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의 재미거리는 느는데 내가 보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패션을 예로 든다면 하이패션에 흥미를 느끼다가 어느 순간 만날 똑같다고 생각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위 범위에서 생겨나는 재미있는 브랜드를 내가 안 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팔로잉을 늘리지 않아요.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거죠.

**판매 여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할까요?** 그렇죠. 다만 작품이 판매되면서부터 든 생각은 있어요. 팔린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안 팔린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컬렉터가 한 말 중 제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하트가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 저의 작업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귀찮길

그런데 하위 범위에서 생겨나는 재미있는 브랜드를 내가 안 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팔로잉을 늘리지 않아요.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거죠.



THE GREAT CHAERPOCKI, Water based oil on canvas, 270 x 220 cm, 2018

에 '하트를 넣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 제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말은 지나치려 해도 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페어 현장에 자주 들르지는 않아요. 작가는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에 따라 이상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인스타그램 덕에 호응에 대해 초연해지는 법은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그림을 업로드 하기 때문에 포스팅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단지 아는 것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놓지는 않는 정도죠.

**예전에 한 전시에서 옷걸이에 작품을 걸어두는 방식을 시도한 적이 있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전시는 무엇인가요? 옷걸이에 거는 방식을 좀 더 확장해보고 싶어요. 편집매장처럼 보이는 공간 안에 무수히 많은 에어브러시 회화를 옷처럼 걸어두는 거죠. 큰 회화는 3백~4백 점, 작은 드로잉은 2천 점 정도예요. 전시장이 아닌 스툴 형태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전시가 아니라 편집 매장처럼 운영하고, 한쪽에 작업실이 있어서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그림이 신상처럼 걸리는 거죠.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반기 계획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업 이외의 나머지 업무를 줄여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맞게 생활이나 소비 패턴도 바꾸려고 해요. 1, 2년 전에는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래, 움직이면 얼마나 버는지 해보자'라면서 기회가 오면 몸이 부서져라 일해보고 돈도 써봤는데, 저랑은 맞지 않는 생활이었거든요. 계속 일을 줄이고 작업의 양을 늘리는 것, 루틴을 성실하게 지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올해의 계획이에요.